

# 토론수업을 활용한 일본문학감상의 Active Learning

-아베 고보(安部公房) 『모래의 여자(砂の女)』를 중심으로-

이 정 희\*

(e-mail: leejh@uu.ac.kr)

---

## 目次

---

1. 들어가기
  2. Active Learning 도입
  3. Active Learning 『모래의 여자』 토론수업 -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
  4. 창작과 문학낭송회-문학치료의 실천적 의미
  5. 맺음말
- 

## 1. 들어가기

일본문학 교육방법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한지 어느덧 10여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이렇다 할 연구 성과는 미비하지만, 늘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일본문학을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더군다나 취업을 위해 실용 외국어 중심으로 교과과정이 바뀌어 가는 추세에 ‘문학 수업’의 자리매김은 그 당위성부터 약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교육의 현장에서 문학이 언어와 분리되어 교육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문학의 교육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학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이문화 이해, 나아가서 인간의 이해로 까지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교육방법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논자는 그동안 「일본문학 교육 방법론 I-문학 교육

---

\* 위덕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부교수

의 의의를 중심으로」<sup>1)</sup>, 「다매체 시대의 일본문학 교육방법론」<sup>2)</sup>, 「일본문학 교육 방법Ⅱ-아베 고보의 『붉은 누에고치』 읽기」<sup>3)</sup>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일본문학 교육 방법론 I-문학 교육의 의의를 중심으로」에서는 주로 대학 교육에서 외국문학 교육, 특히 일본문학 교육의 목표와 의의에 대해서 논하였다. 문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야말로 문학을 통한 전인적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기술했다.

「다매체 시대의 일본문학 교육방법론」에서는 대학 수업에서 실시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문학 교육 방법의 한 예시를 제시해 보았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학습의 동기유발 및 흥미를 끄집어내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문학이 추구해야 할 구조에 대해서 ‘읽기’, ‘쓰기’의 문자언어정보와 ‘듣기’, ‘말하기’의 음성언어정보를 통해서 표현하는 힘, 이해하는 힘, 생각하는 힘을 길러 낼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나머지 논문에서는 그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일본문학 교육 방법Ⅱ-아베 고보의 『붉은 누에고치』 읽기」란 논문을 통해 보여주었다. 작품을 전면으로 부각시킨 만큼, 교수자의 작품 선택의 기준을 비롯해서 교재로서의 문학작품 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주로 일본 교과서 『지도자료』를 철저히 분석했으며, 지도 포인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sup>4)</sup>.

이러한 일련의 논문 성과를 통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찰한 결론은 학생들 만족도 제고는 역시 수업진행 방법에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일본문학 관련 수업의 한 사례로 독서토론 수업 진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서 토론이 단순한 토론 수업의 연장이 아니라 액티브 러닝(Active Learning)이라고 해서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독서 토론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독서 토론을 중심으로 한 수업진행을 생각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문학교육에 관한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살펴보아도 독서 토론에 관한 논문은 없었다.

예를 들어 임태균의 「학습자 위주의 일본근현대문학 수업 사례 연구」<sup>5)</sup>나 「일본문학 교육방법론-이즈미 료카의 『고야산 스님(高野聖)』 수업사례를 중심으로-」<sup>6)</sup>를 보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돋

1) 이정희(2009) 『국제언어문학』 20호, 국제언어문학회, pp185~199

2) 이정희(2010) 『일본문화학보』 46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313~327

3) 이정희(2011) 『일본문화학보』 48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209~224

4) 新国語編修委員会編(1992)『新国語Ⅱ 指導資料』三省堂

5) 임태균(2011) 「학습자 위주의 일본근현대문학 수업 사례 연구」(『일본문화학보』 제51집)

6) 임태균(2012) 「일본문학 교육방법론-이즈미 료카의 『고야산 스님(高野聖)』 수업사례를 중심으로-」(『일본학보』 제91집)

보인다.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수업, 만화 텍스트를 이용한 수업 등 학습자들의 감성을 자극할만한 매체들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간적 제약으로 작품 전문을 다루지 못하고 일부 발췌한 인용문만을 다루고 작품을 고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또한 지난해에 발표한 박혜성의 「영상을 이용한 일본문학 교육방법론-수업 사례를 중심으로-」<sup>7)</sup>를 살펴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활용한 수업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발표 사례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영상 매체를 활용한 수업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즈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소설을 읽는 재미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느끼게 해줄 것인가' 이다.

고전적 의미에서의 '독서 토론'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소설을 읽는 재미'를 맛보게 할 것인가, 나아가 문학적 감동과 감동 이외의 것을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액티브러닝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 2. Active Learning 도입

### 2.1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대학 현장에서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너무나 범람하고 있는 정보의 양으로 인해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을 담당해야 하나'가 하나의 난제로 떠올랐다. 게다가 그 정보의 대량 생산 유통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속도와 불규칙성으로 인해 정보의 실체를 파악하기란 매우 복잡하기만 하다. 무엇을 섭렵하고 무엇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자칫 잘못하면 '미시시피강의 잉어'가 될 판국이다. 지금 미시시피강에는 아시아 잉어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원래 미시시피강 인근에는 아시아 잉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메기 양식업자들이 해조류와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해 친환경 목적으로 아시아 잉어를 수입했는데, 어느 해 홍수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미시시피강으로 흘러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미시시피강 전역뿐만 아니라 오대호까지 북

7)박혜성(2014) 「영상을 이용한 일본문학 교육방법론-수업사례를 중심으로-」(『일본연구』 제59호)

상한 잉어 떼들은 엄청난 식성과 번식력으로 토종 물고기의 씨앗을 말리고 있다고 한다.

한번에 100만개의 알을 낳을 정도의 왕성한 번식력, 매일 자기 중량의 50% 정도의 플랑크톤을 먹는 식성으로 아시아 잉어가 지나간 곳엔 다른 어종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 불확실한 실체가 증식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물론 학습자도 새로운 교육방법을 통해 불확실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할 것이다.

그동안 대학에서의 강의가 특히 문학수업은 교사중심주의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수자의 역할이 지배적이었다. 심지어는 교수자의 세부전공에 따라 읽힐 작품이 정해지기도 하고, 교수자의 올바른 해석이 학습자들에게 강요당하는 식이었다.

액티브 러닝의 기본은 학습자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간다는 것이다. 이에 학습자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면, 학습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한다<sup>8)</sup>.

첫째는 적극적인 학습자이다. 적극적인 학습자는 정보를 활발하게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정보를 기억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일상의 문제들에 대하여 브레인스토밍을 즐기고, 토론이나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런 활동 없이 강의 내내 앉아서 필기만 하는 수업 상황을 힘들어 한다.

둘째로, 숙고하는 학습자이다. 숙고하는 학습자는 적극적인 학습자처럼 성급하게 행동으로 옮기기 보다는, 문제에 대하여 ‘우선 조용히 생각해 보자’라고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이들은 그룹 보다는 혼자 학습하는 것을 선호한다.

셋째는 논리적인 학습자이다. 논리적인 학습자는 정렬되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차근차근 생각한다. 분석하고 종합하는 것을 좋아하며 명확한 이론이나 구조에 맞추어 이해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연속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대학 수업에 있어서 교수가 주제 단계를 뛰어넘으면 이들은 강의를 따라가거나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넷째로 실용적인 학습자이다. 실용적인 학습자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다. 이들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결정하기를 좋아하며 새로운 생각이나 이론, 기술 등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일을 즐긴다고 한다. 일을 진척시키기를 좋아하며 매력을 느끼는 아이디어를 자신 있게 실행

8) 조용개 외 공저(2010)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학습전략 포트폴리오』 학지사, pp14~15

에 옮기기 때문에 장황한 생각이나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토론은 싫어한다고 한다.

이러한 학습자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학습 유형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sup>9)</sup>, 이것을 이용해서 학습자 유형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

## 2.2 <수동적 문학교육>에서 <능동적 문학교육>으로

액티브 러닝의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수동적인 교육에서 능동적인 교육으로 교실에서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학교육 하면 수동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하겠다. ‘독서’나 ‘감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도 능동적이라고 보다는 수동적이다.

문학교육은 어떠한 형태로든 교수자가 중심에 있었다. 문학 작품 선택에서부터 내용 파악에 이르기까지 교수자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교수자의 해석과 비판이 바로 정답이 되었고, 감동마저 획일화된 감동 속에서 감동을 맞아야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작품을 읽는 독자를 학습자로 생각해 보자. 독자=학습자인 것이다. 이러 틀에서 보면 작품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게 많아진다.

아사쿠라(朝倉)씨는 논문 「文学教育における『教師中心主義』」<sup>10)</sup>에서 문학교육에 있어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를 교수자를 문학 해석자로 보고, 학습자를 독자의 위치에 두었다. 그리고는 소설 속 ‘중심인물’의 ‘중심’을 작품의 ‘중심’인지, 아니면 독자의 의식 속의 ‘중심’인지를 밝혔다. 지금까지 ‘중심’을 작품 속의 중심으로 보아왔다면, 앞으로의 ‘중심’은 독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학습자가 『모래의 여자』의 중심인물이 <모래의 여자>라기 보다는 <모래의 남자> 쪽이 더 인상적이었다면, 그 학습자에게 있어서 중심인물은 <모래의 남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라고 볼 수 있다. 강의실 안에서의 중심을 교수자가 아니라 학습자에게 둔다면 능동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문학작품을 교재로 한다면 반드시 학습자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주체적인 감상 속에는 반드시 무언가 다양한 시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9) wjs게서, pp12~13. 이밖에도 『새시대 교수법』(조벽, 한담북스,1999)에서는 학습자 유형을 8가지로 나누었는데, 적극적 학습자와 수고하는 학습자, 감각적인 학습자와 직관적인 학습자, 시각적인 학습자와 언어적인 학습자, 순차적인 학습자와 총체적인 학습자로 나누고 있다.

10) 朝倉徹(1993) 「文学教育における『教師中心主義』」 日本大学 『教育学雑誌』 第27号, pp70~71.

### 3. Active Learning 『모래의 여자』 토론 수업 -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

#### 3.1 포트폴리오 제작

3학년 전공수업에 '일본문학감상'이라는 교과목이 있다. 그동안은 줄곧 「다매체 시대의 일본문학 교육방법론」에서 밝혔듯이 일본문학작품 중 명작을 드라마 또는 영화로 제작한 것을 선별해서 감상했다. 1주일에 2시간이라는 제한적 시간에 한 편의 명작을 동영상으로 감상하고, 그 다음주 2시간에는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토론 위주로 진행했지만, 시간 부족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1학기 15주, 주 2시간 수업 중 4주를 할애를 해서 독서토론 수업을 계획하였다. 먼저 작품 감상 편수를 줄이고, 한 작품을 좀 더 시간을 갖고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해 보았다. 학생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힘들어 하다가 작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았다.

치밀한 수업지도안 준비 등을 위해 '일본문학감상' 과목 티칭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로 했다. 티칭 포트폴리오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티칭 포트폴리오의 구성요서는 다음과 같다.

- ①자신으로부터 수집되는 자료1 -교육철학, 교육경력, 학습자정보
- ②자신으로부터 수집되는 자료2 -수업목표, 수업방법, 수업자료
- ③타인으로부터 수집되는 자료 -수업평가 결과 및 분석, 학습성과자료, 학습자 피드백 자료, 수업 관찰 자료
- ④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자료 - 수업 개선 노력 및 결과
- ⑤자기 성찰 자료 -교수 계획 및 실행 분석, 전체 소감 및 기타

교수자들 중에 교육학을 전공으로 했거나 혼자 틈틈이 공부한 교수자들은 나름 자신의 교육철학이 어느 교육학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까지 파악하고 있지만, 대부분 많은 교수자들이 자신의 교육철학을 별로 의식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하겠다.

논자의 교육철학은 '감동교육'이다. 논자의 수업을 통해 감동을 받는 학생이 있다면 성공이고, 또 역으로 학생의 학습활동을 통해 교수자가 감동을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 지난 2002년 한국을 방문한 미국 브라운대학의 루스 시몬스총장은 인터뷰에서 "교육은 학생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술이고 교육자는 마술사"라고 말하였고, 또 학생이 감동해야 수업시간에 창의력을 발휘하는 만큼, '감동교육'이야말로 교육의 요체라고 했다<sup>11)</sup>.

이렇듯 교육철학은 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교수자 역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한 기준이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강의를 좀 더 충실히 잘 하려면 교수자들이 자신의 교육철학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자신의 교육철학을 기술해 놓고 보면 교수자들이 강의실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음을 의식하게 되고 신조가 갖든 강의는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한다<sup>12)</sup>.

교육철학 외에 자신으로부터 수집 할 수 있는 자료로 수업목표, 수업방법, 수업자료를 정리하는 수업계획서(또는 강의계획서)가 있는데, 이 수업계획서 역시 잘 작성해야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겠다.

2015학년도 1학기에 전공 수업 질적 개선을 위해 우리대학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CHANGE 연구회'를 신청해서 선정되어, 한 학기동안 지원을 받으며 '전공에 충실하자!!'라는 슬로건 하에 스터디 활동을 하였다. 학과 교수님들이 각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을 전부 설명하고 수업 사례 발표를 하였다<sup>13)</sup>.

각 전공 수업은 교수님들의 수업계획서를 열람해 보기 전에는 구체적인 수업내용을 다른 교수님들은 서로 잘 모른다. 그러므로 수업내용 공유 측면에서 본 'CHANGE 연구회'는 전공수업 개선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 되는 '일본문학감상' 수업 역시 수업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기존의 일반적인 토론 수업 방식을 업그레이드 하여 새로운 액티브 러닝(Active Learning)을 접목시켜 수업을 진행하였다.

11) 조선일보 2002년 10월 23일. <흑인여성 첫 아이비리그 총장 미 브라운대 루스시몬스> 인터뷰 기사.

12) 조벽(2010), 『명강의 노하우&노와이』 해냄출판사, p33

13) 제1차 CHANGE연구회(2015.5.12. 이정희교수 발표), 제2차 CHANGE연구회(2015.5.26. 강진문교수 발표), 제3차 CHANGE연구회(2015.6.2. 안희정교수 발표), 제4차 CHANGE연구회(2015.6.16. 아베 토모코교수 발표회), 제5차 CHANGE연구회(2015.6.23. 이마이 리에교수 발표), 제6차 CHANGE연구회(2015.7.8. 종합토론)

### 3.2 워크북 제작

이 수업 진행을 위해 지난 겨울 방학 동안 강의 자료의 일부로 워크북을 제작하였다. 이 워크북에는 액티브 러닝을 위한 활동을 순차적으로 계획해서 작성하였다. 몇몇 작품 중에 아베 고보(安部公房)의 『모래의 여자(砂の女)』를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아베 고보의 『모래의 여자』를 택한 이유는 이 소설책이야말로 '나를 바꾼 한 권의 책'이었던 것이다<sup>14</sup>. '나를 바꾼 한 권의 책'이라는 소타이틀 역시 학습자들에게 수업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되었다.

학생들에게도 각자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책'이라든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룹 토의를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에는 일본문학 작품에 국한 하지 않는다<sup>15</sup>.

대부분 문학사를 하든, 작품 분석을 하든, 자연스럽게 작가 소개가 필수적으로 딸려 들어간다. 특히 일본문학사에 나오는 작가들은 학습자들에게는 현대의 인기 있는 작가를 제외하면 생소하고 낯설게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작가 소개에 있어서 처음으로 일괄적으로 '작가 이력서'를 작성해 보았다(<표 1>아베 고보 이력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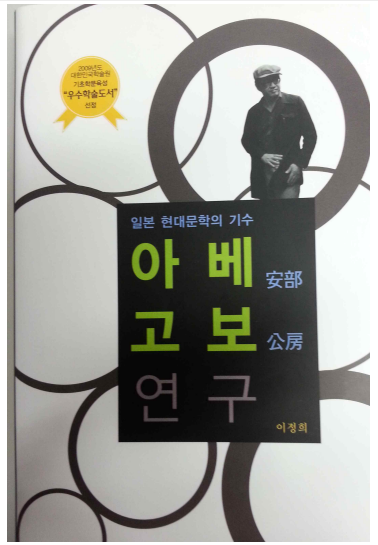
작가 아베 고보의 이력서를 보면 작가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설명 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 된 정보를 중심으로 입력하였다. 특히 학력의 이동을 중요시한 것은 작가 아베 고보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아베 고보는 어린 시절을 만주(현재 중국의 동북부지역)에서 보냈고, 중학교 졸업 이후는 도쿄에서 지내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 1년간 홋카이도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도 아베 고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작가'라고 하는 인물이 특별하고 멀리 느껴지는 존재가 아니라 가깝고 친근한 존재로 느끼게 하는 효과도 있다.

14) 대학교 3학년 때에 번역서로 읽은 『모래의 여자』는 필자의 인생을 바꾸어 버리고 말았다. 그때까지 카프카나 카뮈에 몰려 있던 관심이 아베 고보라는 작가에게로 전이되어 갔다.

15) 학생들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다음과 같다(일본문학작품에 한정하지 않았음). 『상실의 시대』 『우동 한그릇』 『아프니까 청춘이다』 『더 시크릿』 『리स्पек트』 『연금술사』 『나무』 『마시멜로 이야기』 『설득의 심리학』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엄마를 부탁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삼국지』 『정의란 무엇인가』 『모모』 『1리터의 눈물』 『공정의 한 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소나기』 『난중일기』 『도가니』 『도토리집』 『이 멋진 세상에 태어나』 『연을 쫓는 아이』

<표1> 아베 고보(安部公房) 이력서

이름	아베 고보(安部公房, Abe Kobo)	
본명	아베 기미후사	
별명	아베코베(あべこべ)	
생년월일	1924년 3월 7일	
사망월일	1993년 1월 22일	
출생의고향	일본 도쿄(東京)	
존재의고향	만주국 봉천(奉天, 현재의 瀋陽)	
병역	군사훈련 때는 언제나 농땡이를 쳤다	
가족사항①	아버지 : 만주국대 교수	
	어머니 : 소설가	
	남동생 : 의사	
가족사항②	여동생 : 디자이너	
	부인 : 무대장치가	
취미	딸 : 의사	
독서편력	발명, 수집, 드라이브	
	니체, 하이데거, 릴케, 카프카	
학 력		
193?년 ?월	봉천치요다초등학교 입학	
193?년 ?월	홋카이도 히가시다카스 킨분제일초등학교 전학(1년간)	
193?년 ?월	봉천치요다초등학교 복학	
1936년 4월	봉천제이중학교 입학	
1940년 ?월	도쿄 세이조고등학교 입학	
1943년 9월	도쿄제국대학 의학부 입학	
1944년12월	폐결핵 진단서를 위조해서 대학에 제출하고 만주 봉천으로 돌아감	
1945년8월	만주에서 패전을 맞이함	
1946년12월	일본으로 귀환	
1947년4월	도쿄대학 복학	
1948년3월	도쿄대학 의학부 졸업	
주요 작품 발표 경력		
1940년대	『無名詩集』, 『終りし導の標に』, 『デンドロカカリヤ』	
1950년대	『赤い繭』, 『壁-Sカルマ氏の犯罪』, 『けものたちは故郷をめざす』 다수의 라디오, 드라마 각본을 씀	
1960년대	『砂の女』, 『他人の顔』, 『燃えつきた地図』, 『砂漠の思想』	
1970년대	『箱男』, 『密会』 아베스튜디오 결성, 극작가, 연출가로 활동	
1980년대	『さくらの方舟』, 『死に急ぐじらたち』	
1990년대	『カンガルノート』, 『飛ぶ男』 (미완성 유고작)	
주요 수상 경력		
1950	제2회 전후문학상 수상(『赤い繭』)	
1951	제25회 아쿠타가와상 수상(『壁-Sカルマ氏の犯罪』)	
1963	요미우리문학상 수상(『砂の女』)	
1967	다니자키 준이치로상 수상(『友達』)	
1968	프랑스에서 최우수 외국문학상 수상(『砂の女』)	

이밖에 워크북에는 작품 줄거리 요약하기,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관계 적어 보기, 토론 주제별 자신의 의견 적어 넣기, 마지막으로 감상문 쓰기 등이 있다.

또한 관련 내용의 논자의 글을 함께 읽어 보는 시간도 할애를 했다. 관련 자료로 2건을 삽입했는데, 하나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동료 교사로 '메비우스의 띠'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데, 이 '메비우스의 띠'에 대한 글이다. '메비우스의 띠'는 한 수학자가 띠를 한번 꼬아 만들어 겹과 속,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없는 띠를 만들어 자신의 이름을 넣어 메비우스 띠라고 하고 무한대를 상징하는 기호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무한대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신화가 있다. 그게 바로 유로보로스라는 자기 꼬리를 무는 뱀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필자가 2009년도에 경북매일에 기고 한 적이 있는데 이 글을 함께 읽어보는 것이다<sup>16)</sup>.

또 하나는 현재도 집필 중인 대경일보의 <소설 속 주인공은 만나다> 시리즈의 첫 번째인 「'모래의 여자'와 '모래의 남자'」다<sup>17)</sup>. 이 글에서는 주로 주인공에 초점을 두고 작품에 등장하는 '여자'와 '남자'의 성격, 관계 등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글 역시 또 하나의 토론 끼리를 제공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이밖에 토론 주제를 미리 공지한다. 수업시간에 실시한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다.

- ①제목에서 나타난 <모래의 여자>의 뜻은?
- ②모래의 성질에 대해서.
- ③여자는 왜 모래사구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 ④내가(학습자 개개인) 이 남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⑤여자와 남자는 밤마다 모래를 퍼내는 작업을 해야했는데,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 ⑥남자는 소설 마지막 부분에 탈출 할 수 있었는데, 탈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 ⑦사막에서 살아가는 곤충들의 생존력과 경쟁력에 대해서.
- ⑧신분증을 비롯하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 ⑨소설 『모래의 여자』와 만화 <모래의 여자> 비교.
- ⑩소설 『모래의 여자』와 영화 <모래의 여자> 비교.
- ⑪이 소설의 뒷이야기를 연결 지어 창작해 보기.
- ⑫이 소설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 낭송하기.

16) 이정희 「유로보로스」(경북매일신문, 2009.5.26)

17) 이정희, 소설 속 주인공을 만나다 「'모래의 여자'와 '모래의 남자」(대경일보, 2014.11.17)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워크북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은 연습과 일맥상통하는 사전 수업과도 같은 효과를 지닌다. 그룹 토론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학습자들로 하여금 작품을 보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 되기도 한다.

워크북은 메모와 감상 등 글짓기가 가능하도록 여백을 두고 제작한다.

워크북 마지막 부분에는 작가 아베 고보의 다른 작품 및 관련 연구 서적에 대한 정보를 실는다.

- ① 『아베 고보의 단편집 벽(壁)』 (이정희역, 위덕대학교출판부, 2001)
- ② 『친구(友達)』 (『文芸』 3月号, 1967)
- ③ 『타인의 얼굴(他人の顔)』 (이정희역, 문예출판사, 2007)
- ④ 『상자인간(箱男)』 (송인선역, 문예출판사, 2010)
- ⑤ 『불타버린 지도(燃えつた地図)』 (이영미역, 문학동네, 2013)
- ⑥ 『일본현대문학의 기수 아베 고보 연구』 18)(이정희저, 제이앤씨출판, 2008)

### 3.3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액티브 러닝을 위한 필수 보완 조건으로 플립 러닝이라는 것이 있다. 플립 러닝은 수업 전에 이론 부분이나 연습해야 할 부분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미리 학습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니까 다음 수업을 위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과제물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독서 토론 수업 등에서도 대부분 연습 등으로 책을 읽어 오라고 한다. 그러나 학습자들 전원이 책을 다 읽어온다고는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독서 퀴즈를 만들어 간단히 테스트를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실시한 독서 퀴즈는 다음과 같다.

- ① 주인공 남자의 이름과 나이는?
- ② 주인공 남자의 직업은?
- ③ 주인공 남자가 휴가를 이용해서 해안가를 찾은 이유는?
- ④ 사구에 사는 여자가 돈을 벌어서 꼭 사고 싶은 물건 2개는?
- ⑤ 주인공인 신뢰하는 동료교사로서 교조활동에 열심히 하는 교사의 별명은?
- ⑥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구지역을 무슨 지옥이라고 했나요?
- ⑦ 여자는 무슨 일로 들 것에 실려 밖으로 나가게 되었나요?
- ⑧ 모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 ⑨ 남자가 자신의 처지를 알리려고 까마귀를 잡으려고 했는데, 까마귀의 이름은?
- ⑩ 주인공 남자가 사고지역에서 새롭게 발견한 장치는!!

- ⑪주인공 남자는 이 사구지역에서 몇 년을 살고 있는 것인가요?
- ⑫남자는 실종신고 이후 몇 년이지나 사망처리가 되나요??
- ⑬어른뿐만 아니라 곤충채집에 유난히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 아이는 대부분 이 콤플렉스가 강한데 무슨 콤플렉스인가요?
- ⑭기호 무한대의 기원이 되는 신화에 나오는 자기 꼬리를 무는 뱀의 이름은?
- ⑮남자가 민박을 하기 위해 들어간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요?

위 독서 퀴즈는 2회에 걸쳐서 실시한다. 독서퀴즈는 '골든벨'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퀴즈를 많이 맞힌 학생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부상을 준다. 또한 성적에 반영을 하여 성적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독서 퀴즈를 통해 전체적인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학습자들의 사전 학습은 소설 책을 읽어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만화로 된 <모래의 여자>(사진1 참조)를 번역해 오는 작업이 주어진다<sup>19)</sup>.

2쪽으로 표현된 만화 <모래의 여자> <사진1> 만화 <모래의 여자>는 최단시간 내에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다.

만화는 사구지역에 살고 있는 주거환경을 포인트만 잡아 표현하고 있어서 학습자가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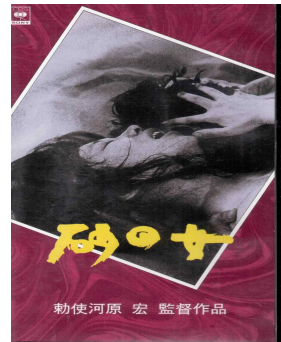
또한 작품의 전체 흐름 중에 실존주의적 한계 상황을 단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서 만화 텍스트가 주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게다가 일본어로 된 줄거리를 번역하면서 <사진2> 영화 <모래의여자> 일본어 문장 번역 연습까지 겸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또 하나의 플립 러닝으로 실시해야 할 것은 영화 <모래의 여자>를 미리 감상하고 수업에 임하도록 한다. 이때 그룹 감상을 권장한다.

수업시간에 영화 <모래의 여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하는 것은 시간상 무리가 있으므로 학습자들에게 수업 전에 감상할 수 있도록 과제로서 부여한다.



19) 三木卓監修(2001) 『日本の名作文学案内』 集英社. pp250~251.

이러한 사전 과제는 소설 『모래의 여자』를 미리 책으로 읽어오게 하는 과제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책으로 『모래의 여자』를 읽을 때에는 각자 자신이 시간을 내어 읽을 수 있지만, 영상으로 감상 할 경우는 그룹으로 감상하게 하며, 감상 포인트는 토론 주제와 연관 지어서 감상토록 한다.

이런 사전 작업이 완료되면 수업시간에는 영화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면만 편집해서 보여주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 등을 발표하면서 내용을 깊게 파고들어 간다.

### 3.4 액티브 러닝의 평가

액티브 러닝을 도입하면 학습자 평가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평가기준에는 평가 대상을 개인과 팀 단위로 했고, 팀 단위의 평가는 팀원 간의 평가를 활용하여 개별점수로 환산 했다.

개인평가 점수는 수업 시작시 시작하는 독서 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학습활동 참여도 등이고, 팀별 평가 점수는 팀별 학습활동에 대한 성과, 팀별 과제수행, 토론 결과 보고서 등이다.

또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가 기준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었다. 예를 들어, 평가기준1에서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로 하고, 평가기준2에서는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40%로 한다. 이렇게 하면 중간고사 성적이 낮은 경우에도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성적이 좋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높은 성적을 획득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평가 기준을 두면 학습자로 하여금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만들므로 학습 분위기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학습평가는 언제나 학습자에게는 민감하고도 중요한 성과물이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경쟁의식을 조장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협업에 의한 성취감을 맛본다거나, 팀 활동에서 개인의 역할과 기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리고 성적은 교수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획득해 가는 거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는 있다고 본다.

## 4. 창작과 문학낭송회-문학치료의 실천적 의미

수업 '일본문학감상'의 하이라이트는 창작이라는 작업과 문학낭송회라고 하

겠다. 창작은 작품 『모래의 여자』 뒷부분을 창작하는 작업이다.

『모래의 여자』는 독자로 하여금 작품 뒷부분을 얼마든지 상상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고 막을 내렸다.

학습자들은 자유롭게 각자 상상의 날개를 펴고 스토리의 뒷부분을 이어서 창작해 본다. 이 작업이 얼핏 보기에는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학습자들이 참여를 해 보면 재미있고 활기차게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인간은 누구나 새롭게 만들어 내는 창작에 대한 욕망을 품고 산다고 한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하도록 유도한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창작한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상황을 꿈으로 표현하였다. 사구지역의 개미지옥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한 것을 꿈으로 그렸다. 꿈에서 깨어나 다시 똑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구지역에 머물지 않고 마지막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그렸다.
- ② 남자는 결국 모래의 여자를 데리고 도시로 나가 행복하게 산다.
- ③ 모래의 여자는 다시 사구지역으로 돌아오고, 남자는 유수장치를 보급해 사구지역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지역의 발전을 꾀하면서 산다.
- ④ 모래의 여자는 결국 자궁외임신으로 사망하고, 남자는 사구지역에서 혼자 살고 있는 데, 어느 날 한 여자가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 모래의 집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그 여자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남자와 함께 생활하게 된다.
- ⑤ 남자는 여자가 자궁외임신으로 밖으로 나간 사이, 여자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곳을 떠난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살 던 곳으로 찾아간다.

이러한 일명 <속 모래의 여자> 창작활동은 의외로 학생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했다.

가장 인상적인 창작은 『모래의 여자』 작품에서 전개되는 모든 상황을 꿈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미스터리 형식의 사건 전개로 황당무계, 기상천외한 내용들이 돋보였다.

마지막 활동으로 문학 낭송회를 열었다. 지난 학기에는 작은 시낭송회를 열었다. 시 선정에 있어서도 일본문학에 있는 시 작품을 선택하도록 한정 짓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시로 정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문학치료학의 의미에서 볼 때, 일본어 교육 측면 보다는 문학이 주는 원초적인 카타르시스를 만끽해 보자는 의미가 더 컸기 때문이다. 나아가 문학을 향유하는 기본에는 전공

의 영역을 뛰어 넘어 자신이 좋아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습자들이 낭송한 대표적인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도중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
- ②윤동주의 '서시'
- ③이해인의 '풀꽃의 노래'
- ④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 ⑤미야자와 겐지(宮沢賢治)의 '雨にもまけず'
- ⑥하이쿠(俳句) 낭송
- ⑦오사다 히로시(長田弘)의 '世界は一冊の本'
- ⑧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의 '君死にたまふことなかれ'

지금 현 시대 일수록 대학교육에서 문학이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싶다. 문학이 지니는 카타르시스나 치유의 기능은 점점 더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앞으로의 문학은 문학치료학이 주를 이룰 것만 같다.

## 5. 맺음말

일본문학 교육방법 개선의 일환으로 새롭게 액티브 러닝을 도입해서 '일본문학감상'수업에서 실시한 토론 수업을 수업사례 발표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지난 학기에 처음 실시한 액티브 러닝은 만족스러울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기에는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학생들이 오래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수업이 되었다고 한 점이다.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성과 중 새롭게 발견 한 사실이 있다. 다른 아닌 일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학생과, 토론에 강한 학생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토론 수업을 잘 이끌고 가는 학생의 발견은 논자에게는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새롭게 도입해서 시작한 포트폴리오 제작은 한 강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교과목으로 확산해서 작성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 【참고문헌】

- 安部公房(1962) 『砂の女』 新潮社
- 朝倉徹(1993) 「文学教育における『教師中心主義』」(日本大学『教育学雑誌』第27号)
- 三木徹監修(2001) 『日本の名作文学案内』 集英社
- 박혜성(2014) 「영상을 이용한 일본문학 교육방법론-수업사례를 중심으로-」(『일본연구』 제59호)
- 아베 고보(2001) 『모래의 여자』 민음사
- 이의용(2010) 『잘 가르치는 교수』 쌤앤파커스
- 이정희(2009) 「일본문학교육방법론 I -문학교육의 의의를 중심으로」(『국제언어문학』 20호)
- 이정희(2010) 「다매체 시대의 일본문학 교육방법론」(『일본문화학보』 46집)
- 이정희(2011) 「일본문학교육방법Ⅱ-아베 고보의 『붉은 누에고치』 읽기」(『일본문화학보』 48집)
- 임태균(2011) 「학습자 위주의 일본근현대문학 수업 사례 연구」(『일본문화학보』 제51집)
- 임태균(2012) 「일본문학 교육방법론-이즈미 쿄카의 『고야산 스님(高野聖)』 수업사례를 중심으로-」(『일본학보』 제91집)
- 조용개 외 공저(2009) 『성공적인 수업을 위한 교수전략』 학지사.
- 조용개 외 공저(2010)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학급전략 포트폴리오』 학지사.
- 조벽(2010), 『명강의 노하우&노와이』 해냄출판사
- EBS<최고의교수>제작팀(2008) 『최고의 교수』 예담

## 要 旨

글로벌 정보화 시대에는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너무나 범람하고 있는 정보의 양으로 인해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을 담당해야 하나'가 하나의 난제로 떠올랐다. 게다가 그 정보의 대량 생산 유출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속도와 불규칙성으로 인해 정보의 실체를 파악하기란 매우 복잡하기만 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학에서도 외부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정보의 양으로 인해 불확실한 실체가 증식되는 것을 새로운 교육방법을 통해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학에서의 강의가 특히 문학수업은 교사중심주의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수자의 역할이 지배적이었다. 심지어는 교수자의 세부전공에 따라 읽힐 작품이 정해지기도 하고, 교수자의 올바른 해석이 학습자들에게 강요당하는 식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문학 교육방법 개선의 일환으로 새롭게 액티브 러닝을 도입해서 '일본문학감상'수업에서 실시한 토론 수업을 수업사례발표식으로 정리해보았다.

액티브 러닝의 기본은 학습자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간다는 것과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지난 학기에 처음 실시한 액티브 러닝(Active Learning)은 만족스러울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기에는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학생들이 오래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수업이라고 한 점이다.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성과 중 새롭게 발견 한 사실이 있다. 다름 아닌 일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학생과, 토론에 강한 학생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토론 수업을 잘 이끌고 가는 학생의 발견은 필자에게는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새롭게 도입해서 시작한 포트폴리오 제작은 한 강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교과목으로 확산해서 작성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키워드 : 액티브 러닝(Active Learning),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포트폴리오, 일본문학교육방법, 아베 고보, 모래의 여자, 문학치료학, 독서토론

투 고 일 : 2015. 5. 31  
심 사 일 : 2015. 6. 13  
게재확정일 : 2015. 7. 4